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5호 【루계 제24383호】 주체102(2013)년 12월 1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지금 온 나라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경건히 우러르며 충정의 한마음을 더욱더 굳게 가다듬고있으며 이 땅 그 어디에서나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들이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초불처럼 깡그리 태우시며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혁명가,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선군사상의 무궁무진한 견인력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고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고 우리 조국이 신심과 활력에 넘쳐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하며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실현하여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피눈물속에 영결한 때로부터 2년이 흘렀다. 이 나날은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적뉴대의 공고성이 뚜렷이 실증되고 온 나라가 장군님의 유훈 관철로 세차게 끓어번진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수령영생위업실현의 빛나는 장을 펼쳐나가는 선군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은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켰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라난 모든 사람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눈물속에서 솟구쳐 일어나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해올수 있게 한 정신적원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은 티없이 순결하고 고결하였으며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혁명적각오와 열정은 더없이 강렬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야전복을 입으시고 초인간적인 의지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불같은 충정의 정신력이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 유훈이 빛나게 실현되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강성번영의 씨앗들을 잘 가꾸어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틀어쥐고 하나하나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을 제일가는 사명으로, 본분으로 새겨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력사적인 애국의 호소문으로 온 나라에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고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의 시대적본보기를 창조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의 세계는 온 나라가 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으로 끓어번지게 한 원동력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바라시던 념원들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게 되였다. 불과 몇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봉사기지들이 일떠서고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반드시 실현된다는것,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심장깊이 새긴 고귀한 철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은 혁명과 건설의 강령적지침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투쟁의 대백과전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우리가 강성국가건설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부문별과업,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는 오늘날 우리 인민이 높이 발휘해야 할 혁명정신으로부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건설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요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이르기까지 고귀한 지침들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가 있다.

지금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책동은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시련이 겹쌓이고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하여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에서 주저하거나 한치도 물러설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선군혁명의 길에서 천백배로 다져놓은 강력한 정치군사적토대와 자립경제의 튼튼한 잠재력,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강성국가건설의 미래는 창창하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맹렬하게, 더욱더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일편단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실 충정의 일념이 우리 혁명대오안에 꽉 차넘쳐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지니고 사는 장군님의 아들딸들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자신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억세게 나아갈 철석같은 신념을 지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시며 고무해주신다는 자각을 지니고 매일매일 장군님께 하루일과를 총화지으며 부단히 수양하고 분발해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이 지닌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의 맹세가 높은 사업실적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자랑찬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모든것을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신조이며 령도원칙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데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숨결만이 힘있게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혁명승리에 대한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야 하며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김정은**시대의 열혈의 동지, 참된 혁명전우가 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접수하고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하며 특히 현지지도단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유훈이 집대성되여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게 조국을 사랑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본보기들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담겨져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며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조약돌 한개도 제살붙이처럼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애국의 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어버이장군님께서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고 증산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나가야 한다. 당면하게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해나감으로써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장군님께 자랑찬 충정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서 전위대오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고있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거울로 삼고 그를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군인들처럼 오늘의 총공격전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제일생명으로 삼는 투철한 자세, 장군님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려는 결사의 의지, 장군님의 유훈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실현하는 불같은 충정이 우리모두의 정신세계로 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백절불굴의 공격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단숨에의 기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의 열정이 최대로 분출되게 하여야 한다. 대상의 준비정도와 심리적특성, 계기와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서 미진된것이 없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철저히 집행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졌다는 투철한 립장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끝장을 볼때까지 밀고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식인민관을 체질화하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 관철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12일 타이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타이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차나이 롱언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1월 23일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결성과 관련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결정서가 발표되였다.

결정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조직들이 회고모임과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미하일 빤첸꼬가 선출되였음을 결정서는 밝혔다.

* *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 하바롭스크변강위원회가 11월 26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바롭스크변강 로조친선협회 위원장인 하바롭스크변강정부 문화상 알렉싼드르 페도쏘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그이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각하회고 만마위원회가 11월 25일에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결성과 관련한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공보가 발표되였다.

공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애석하게 서거하신 2돐을 맞으며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은 조선로동당원들, 조선인민과 함께 그이의 빛나는 생애에 대하여 회고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회고위원회들이 결성되고있으며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각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공보는 위대한 **김정일**각하회고 만마위원회가 공식 결성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회고위원회는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중앙집행위원 아웅 테인린을 위원장으로 하여 만마련맹련대성발전당 중앙위원회와 양곤지역위원회 성원들, 사회단체의 이름있는 인사들로 조직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전체 조선인민,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11월 25일부터 1개월간 회고모임, 좌담회,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할것이다.

회고위원회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유훈대로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 *

위대한 **김정일**령도자회고위원회가 11월 20일 이란의 테헤란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란 알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 하디 가포리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회고모임,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체스꼬위원회가 11월 20일 쁘라하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미로슬라브 슈쩨빤과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로슬라브 까프까가 각각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곡산군, 수안군, 송원군, 전천군, 김화군에 모셔졌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곡산군, 수안군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군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송원군, 전천군, 김화군에도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아로새겨져있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태양상모자이크벽화들을 높이 모시였다.

전후 강선을 찾으시여 강재 1만t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하시며 로동계급을 강철증산에로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정중히 모셔졌다.

평강군 천암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해갈 일념안고 모자이크벽화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를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는데 온갖 지성을 바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휘황찬란할 주체혁명의 앞날을 확신하시는 천출위인들의 숭엄한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조국》이 강동군 남강로동자구에 모셔졌다.

여러 단위에 모자이크벽화를 모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행사가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 막장마다 혁신의 기상 나래친다

###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석탄생산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이 막장마다에서 총돌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석탄을 넉넉히 대주고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재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갱막장에 지휘부를 정하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년간 석탄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하여 탄광들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모든 로력을 갱막장에 집중시키였다.

특히 책임일군들부터 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서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기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사상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석탄증산의 앞장에 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석탄증산으로 우리 당을 결사옹위해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온 탄전에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은 올해 석탄생산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면서 언제나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해나가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그리하여 벨트콘베아, 전차, 탄차, 사슬콘베아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게 하고있다.

석탄생산에서 앞서나가고있는 9갱 채탄2, 1중대, 10갱 채탄2중대, 7갱 채탄2중대, 2갱 채탄3중대, 3갱 채탄2중대, 5갱 채탄3중대를 비롯하여 수십개의 채탄중대들에서 11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탄광의 모든 중대들에서 교대가 다음교대를 도와주기 위한 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요즘 석탄생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뛰여오르고있다.

천성청년탄광에서는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석탄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갱막장에 들어가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탄부들의 기세가 더욱 높아지는 속에 8갱 채탄3중대, 5갱 채탄2중대, 1갱 채탄3중대를 비롯한 여러 채탄중대들에서 11월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령대탄광의 탄부들도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6갱 채탄1중대의 뒤를 이어 3갱 채탄3중대를 비롯한 탄광의 탄부들도 맡겨진 11월계획을 수행하였다. 탄광의 일군들은 석탄생산량이 늘어나고 작업환경이 변하는데 맞게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탄부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순천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올해생산전투를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백대의 탄차와 수백개의 전차, 탄차바퀴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은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의 로동자들도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 장군님 그리움으로 불타는 12월

누구나 기다리군 하던 12월이다. 불과 이태전까지만 해도 지나온 1년을 총화하고 새해를 마중하게 된다는 환희속에 류다른 격정을 안고 맞이하던 한해의 마지막달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나라의 어디서나 한없는 그리움에 불타는 절절한 마음과 마음들이 너무도 무겁게 12월의 달력을 번진다.

천만군민의 그 절절한 심정을 담아 주체102(2013)년 12월의 첫 당보지면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였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자애로운 어버이를 목메여 찾고 부르며 오열을 터뜨리던 피눈물의 그 12월에 대한 잊을수 없는 추억이 천만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 유훈관철의 신념과 의지를 더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수령님의 위업을 받들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고결한 한생이였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12월들은 위대한 장군님앞에 선 심정으로 자기의 깨끗한 량심과 한해 사업실적을 총화해야 할 가장 의의깊은 달들인것이다.

무릇 12월은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는 달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12월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신분, 세기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과 한없이 자애롭고 고결한 덕망으로 빛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성스러운 한평생이 소중히 담겨져있다.

저 하늘에서 내리는 12월의 흰눈송이를 보아도 궂은비, 찬눈을 다 맞으시며 헌신해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로고가 눈물겹게 되새겨지고 이름없는 산기슭에 뻗어간 눈덮인 길을 보아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야전렬차를 타시고 헤쳐가신 장군님의 강행군길이 더듬어져 눈시울을 적시는 이 나라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영상을 우러르며 오직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길로 곧바로 걸어온 인민이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전백승의 기치였고 그이의 필승의 기상과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이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인민으로 위용떨치게 한 원천이였다.

이민위천으로 이어지는 자욱자욱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맥박치고 투철한 사회주의념이 고동치며 열렬한 애국, 애족, 애민의 열과 정이 뿜어져나오는 우리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였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 조선을 이끄실 웅지를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의 한생은 얼마나 비범하게 흘러왔던가.

당건설사를 보면 당의 령도자의 비범한 품격과 자질이 안겨오고 군건설사를 펼치면 선군령장의 위풍과 령군술이 넘쳐나며 문학예술사의 갈피를 번지면 문학의 천재, 예술의 대가의 위인상이 안겨온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보면 창조의 영재이신 그이의 출중한 실력이 가슴을 울리고 선군시대의 외교사를 보면 다문박식하시고 외교에 능통하신 현대외교의 거장의 모습이 안겨온다. 말그대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그이의 업적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절세의 위인상과 그이께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이 바로 인민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고귀한 빛을 뿌리기에 력사는 페지를 아낌없이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엮은것이며 인류는 그이를 만물에 생을 주는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이다.

정녕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창조물,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전설이 깃들지 않은 일터와 마을이 그 어디 있으랴.

두해전 12월의 그 나날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한평생의 무게를 안으시고 하루하루를 위대한 헌신속에 보내시였다.

찬바람부는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요일의 휴식까지 바치시며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넘쳐나는 개선청년공원 유희장을 찾으시였고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는 하나음악정보쎈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돌아보시며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데 대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서는 잊지 못할 그 12월에 자신의 한생을 이렇게 총화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우신분을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려왔는가를 더욱 심장으로 새겨안았다.

피눈물의 그 12월을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수령영생의 12월, 맹세와 실천의 12월로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한해에만도 얼마나 위대한 헌신의 세계를 수놓으시였던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속에 밝아온 주체102(2013)년은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이 땅에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의 자욱으로 시작되였다.

이해의 첫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찾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리라는 비상한 각오와 강렬한 의지가 그이의 위대한 심장에서 끓고있었다.

이런 불같은 열망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 건설하는 대성산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신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정력적으로 진행하신 혁명활동소식은 공식 보도된것만 해도 190여건에 달한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도록 하시고 그 위대한 모범을 올해 혁명실록의 갈피마다에 뜨겁게 수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최첨단돌파정신, 자기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이해를 자랑스럽게 수놓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꽃펴난 문수물놀이장이며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이며 류경구강병원 등 올해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수도의 새로운 풍경, 최첨단으로 치달으는 주체과학, 금메달로 빛나는 주체체육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들에서 이룩한 가슴뿌듯한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꽃피워가시는 김정일애국주의의 고귀한 결정체들인것이다.

참으로 주체102(2013)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에 떠받들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혁명의 최전방을 초강도강행군으로 달리시며 선군조선의 강성부흥의 만년토대를 위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한 혁명력사가 더더욱 줄기차게 흐른 뜻깊은 한해였다.

우리 인민은 12월을 한해의 마지막달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더불어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의지가 어떤것인가를 력사에 깊이 새겨주며 12월의 야전렬차는 오늘도 래일도 쉬임없이 달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의 12월맹세를 영원히 잊지 않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부흥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7(1988)년 8월

## 《동지애의 노래》와 함께 천만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시고 심장으로 부르고부르신 노래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동지애의 노래〉를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걸출한 위인이신 백두의 천출명장께서 이 세상 많고많은 노래들중의 하나인 《동지애의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신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이 노래가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을 다 안고있으며 래일의 밝은 앞날을 약속해주는 승리의 원동력이기때문이리라.

우리 장군님 이 노래를 부르실 때마다 동지를 찾아 이역만리 오두막을 향하여 걷고 걸으시던 길림시절의 청년장군, 삶과 죽음이 뒤엉킨 격전장에서 기관총을 틀어잡으시고 전우들을 감싸주시던 항일전의 빨찌산 김대장을 우러르시였으리라.

이 노래가 조용히 울릴 때면 우리 장군님 사랑하는 전사들을 뜻을 같이하고 마음이 통하는 쟁쟁한 혁명가들로 키우시던 당의 기초축성시기를 눈앞에 생생히 그려보시였고 마음속으로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시며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못 견디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였으리라.

어버이장군님의 가장 큰 기쁨과 아픔을 다 안고있는 이 노래가 어찌 그이의 심금에서 매일, 매시각 울리지 않을수 있었으랴.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불보다 뜨거운 인간애와 혁명동지에 대한 꺼질줄 모르는 열정을 지니신 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시였다.

일찌기 인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타오르는 열정을 위대한 천품으로 지니고 백두의 광명성으로 탄생하신 그이이시였다.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만경대가문의 혁명유산으로 물려받으시고 혁명동지들을 제일 사랑하고 자신처럼 믿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너는 결코 버릴수 없는 나 너는 귀중한 우리의 너라는 신념을 간직하신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울려주고 있다.

동지들이 있기에 김정일이도 있고 동지들이 없으면 김정일이도 없다는것이 나의 사상적신조이며 나는 곧 그대이고 그대는 곧 나라는 동지에 대한 믿음, 이것이 나의 동지관입니다.

그 위대하고 숭엄한 동지의 세계에서 너는 허담, 나는 정일이라는 글발이 일심단결의 신념으로 새겨졌으며 령도자와 전사가 한치의 간격도 없이 어깨동무처럼 꼭 껴안고 찍은 피가 통하고 정이 두터워지는 일심동체의 기념사진이 불멸의 화폭으로 후세에 전해지고있다.

《동지애의 노래》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였고 결심이였으며 한생의 실천이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한번 맺은 정을 변함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한 동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도 메아리쳐온다.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수 있는 동지를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까지도 내대겠습니다.

이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 장군님이시기에 또 언제인가는 애지중지하시던 동지가 일찌기 곁을 떠난 가슴저린 아픔을 안으시고 한치앞도 가려보기 어렵게 휘뿌려지는 비발속을 뚫고 아스라하게 높은 철다리우에서 침목을 밟으시며 사품치는 강을 건느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계에서 사생결단을 각오해야 하는 혁명은 곧 동지이고 고락을 같이하는 동지는 곧 혁명이였으니 그이께서 동지들과 함께 부르신 《동지애의 노래》는 한없는 믿음의 노래, 끝없는 헌신의 노래였다.

동지를 위하여 죽을수도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수 있고 혁명의 길에서 한번 손을 잡으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변함없이 동지적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위대한 동지애의 철학은 영광의 시대를 장엄히 펼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일로 사랑하신 《동지애의 노래》는 번영하는 김정은시대의 자랑찬 진군가로 더 높이 울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장을 진감한 우리 당의 목소리에서 격조높이 울리고있으며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묘비에 새겨진 존함에서 줄기차게 계승발전되는 혁명적전우애의 감동깊은 화폭을 천만군민 누구나 온넋으로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것이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혁명적전우애의 위대한 세계를 펼치신 절세의 선군령장의 이 선언과 함께 승리의 원동력이며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진군가인 《동지애의 노래》는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재부

### 전사들과 생사고락도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전사들과 생사고락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신 천출명장의 한평생이였다.

못 잊을 주체84(1995)년 1월 1일 선군의지를 안으시고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소의 군인들에게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을 베푸시며 전호가에 력사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입니다!

력사의 그 의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선 우리 군인들을 찾아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길을 헤치고 또 헤치시였다.

그처럼 험난한 길이였건만 사랑하는 인민군전사들을 자신의 전우, 혁명동지라 불러주시며 넘고 헤치신 천리전선길의 시작은 어디고 그 끝은 어디이던가.

선군의 산악 오성산, 위험천만한 판문점과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날바다길도 헤치시며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찾으시여 뜨거운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은 오늘도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성스러운 그 나날 자신께서는 총잡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과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한다고 그토록 뜨겁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 선군대지에 끝없이 울려퍼진다.

숭고한 믿음과 사랑으로 빛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자욱우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일심단결의 대화원은 그토록 훌륭히 꽃펴난것이다.

### 혼연일체의 참모습

인민은 자나깨나 령도자만을 그리며 따르고 령도자는 인민만을 뜨겁게 생각하는 바로 여기에 내 나라, 내 조국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있고 크나큰 위력이 있다.

언제인가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외국방문과정에 있었던 잊지 못할 사연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더듬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외국방문기간 조국의 사랑하는 모든것이 그리웠다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에서 전체 인민이 자신을 생각한것처럼 자신께서도 방문기간 우리 인민들과 전사들을 생각하였다고 뜨거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외국에 가있으면서 조국인민들을 생각하고 조국인민들은 외국에 가있는 나를 생각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혼연일체라고 크나큰 뜻을 담아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머나먼 외국방문의 나날을 열렬한 그리움과 불같은 헌신으로 수놓으신 어버이장군님,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만을 사무치게 그리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열렬한 충정을 깡그리 바쳐 위훈의 탑을 높이도 쌓아올린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

우리의 혼연일체는 정녕 이러한것이다.

언제나 령도자의 마음속에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에 령도자가 있는 이 위대한 혼연일체야말로 선군조선의 참모습이고 더없는 자랑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 철령졸업증과 야전복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가 한결같이 솟구치는 격정속에 불러보는 고귀한 시대어가 있다.

철령졸업증과 야전복!

이 땅의 천만전사들의 심장마다에 총대의 사명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내 조국에 꽃펴나는 모든 행복의 뿌리와 그 모든 창조와 열정의 샘줄기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하는 이 부름속에 그 얼마나 가슴뜨거운 만단사연들이 깃들어있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언제인가 또다시 험한 철령을 넘어 최전연의 병사들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 인민군장병들은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 장군님! 이 험한 철령을 더는 넘지 말아주십시오.

위대한 선군령장을 우러러 터치는 전사들의 뜨거운 그 진정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만큼 철령을 넘었으면 나에게 철령졸업증을 주겠단 말이지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그 어떤 증서로 대신할수 있으랴만 병사들은 그이께서 더는 험한 길 걷지 마시기를 바라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간절한 소원을 정중히 아뢰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때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속에서 분출한 철의 의지는 과연 무엇이였던가.

— 나에게 더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최고사령관이 전선이 위험하고 천길낭떠러지가 무섭다고 비켜선다면 누가 나의 병사들을 찾아가겠는가. 언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지샐 때 고향집생각보다 먼저 최고사령관을 더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고있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나에게서 철령졸업증이란 있을수 없다. 나의 철령행전선길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이렇듯 우리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인민의 만복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천만군민이 그토록 바라던 철령졸업증을 끝끝내 받지 않으시고 야전복차림으로 철령을 넘고 또 넘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넘고넘으신 험한 그 령길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철령의 힘찬 메부리와도 같이 온 세상에 자기의 존엄과 위력을 보란듯이 떨칠수 있었고 력사의 차디찬 광풍을 다 막아주신 그이의 야전복자락이 있었기에 이 땅에는 행복의 포근한 봄날만이 깃들수 있었다.

철령졸업증과 야전복!

정녕 그것은 이 땅에 불패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위대한 한생을 깡그리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께서만이 받으실수 있는 가장 고귀한 칭호이며 위대한 한생의 빛나는 총화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피눈물의 12월의 그날 한평생 야전복을 입으시고 철령과 같은 험하디 험한 길만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솜옷주단》이라는 세상에 없는 충정의 주단길을 펼쳐드린것 아니던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버이장군님께 펼쳐드렸던 그 《솜옷주단》에는 단지 그이에 대한 충정만이 깃든것이 아니다.

바로 거기에는 한평생 야전복을 입으시고 철령을 끊임없이 넘고넘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 선군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갈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신념의 맹세가 비껴있었다.

그렇다.

절세위인의 위대한 한생이 집약되여있고 그이의 숭고한 뜻이 뜨겁게 새겨진 철령졸업증과 야전복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어버이장군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선군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순학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김정일대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하신 말씀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십니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률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 창조와 건설의 년대에 새겨진 송가들

우리 조국의 년대기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충정으로 굽이친 영광넘친 년대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앙양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빛나며 오늘도 천만군민을 기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 승리의 년대—1970년대.

1970년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이 강산에 꽃피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이 조국땅 방방곡곡에 수놓아진 뜻깊은 년대였다. 이 위대한 시대의 본질과 거세찬 흐름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시대의 송가와 함께 더 깊이 새기였으며 오늘도 끝없는 그리움의 노래, 충정의 노래로 부르고있다.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첫 송가는 주체60(1971)년에 태여난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이다.

노래가 태여나기 전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초소와 일터를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전해지였다.

한없이 친근하고 영명하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철저히 원작에 기초하여 형상하는 창조원칙을 세워주시였으며 영화의 매 장면과 혁명가극의 한편한편의 노래들을 명장면, 명곡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사색과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며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혁명가, 문학예술의 거장, 인민의 지도자이신 우리 장군님의 열화같은 충정과 빛나는 예지, 고결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였으며 천만군민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시대의 명작들을 통하여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신뢰와 그리움은 마침내 시대의 송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낳았으며 삽시에 온 나라에 메아리치였다.

《노을이 피여나는 이른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라는 다함없는 그리움의 세계로부터 시작되여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라는 불타는 맹세로 격조높이 승화되는 전인민적송가를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1970년대의 진군길에 올랐다.

1970년대는 그야말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과 존엄이 누리에 빛나는 격동적인 시대였다.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장엄히 선포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는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천만군민의 환희와 격정은 주체65(1976)년에 또 한편의 시대의 송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래》로 터져올라 조국강산을 진감하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만군민은 《백두의 푸른 기상 한몸에 안고 조선에 솟아오른 향도의 해발》로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높은 직위로 알게 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초소의 군인들은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일당백용사의 억센 나래를 달아주시는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으로 알게 되였고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비바람, 눈보라길도 앞장서 헤치시고 수천길막장까지도 다 찾아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우러르게 되였다.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자욱을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안고 따라나서는 천만군민은 《혁명의 붉은 기발 높이 드시고 주체의 내 조국을 빛내이시네》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의 한길을 걸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심오성을 더 깊이 새기게 되였고 주체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것이 어떤것인가를 가슴벅차게 체험하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조국과 혁명앞에 크나큰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였으며 이 땅에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송가가 숭엄하게 울려퍼지는 격동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사랑이 눈부신 해발로 차넘치는 1970년대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노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안녕은 우리의 행복》을 비롯한 시대의 송가들이 줄기차게 창작되여 천만군민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설레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1970년대는 결코 추억의 년대가 아니다.

혁명의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숭고한 귀감으로 보여주시고 혁명의 길에서 한생토록 간직해야 할 신념의 기둥을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새겨진 1970년대는 오늘도 우리 혁명의 명맥과도 같다.

이 위대한 년대가 수령송가와 더불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오늘도 그 생명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명곡들을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1970년대처럼 이 땅우에 사회주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갈 신심드높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차 수

## 수필
# 흰눈의 속삭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눈은 왜 하얗기만 한가. 갖가지 아름다운 색과 모양을 가진 눈송이들이 내린다면 겨울은 그야말로 황홀한 꽃계절로 불리울것이다. 하지만 고집스럽게도 하늘은 흰눈만을 이 땅에 선물한다. 산과 들을 소복단장하며 12월에 내리는 흰눈을 볼 때마다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르군 한다.

몇해전 문화교류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한 외국대표단을 취재할 때였다. 대표단단장이 이야기도중에 나를 보며 문득 이런 말을 꺼내는것이였다.

《전에 조선을 다녀온 친구에게서 들으니 **김정일**령도자께선 목화꽃을 사랑하신다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 목화꽃은…》

십분 리해되는 의문이였다.

목화꽃!

이 세상 하많은 꽃들중에 어이하여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두고 손짚을수 없는 그렇듯 수수한 꽃이 절세의 위인의 사랑을 받게 되였는가.

나는 이야기하였다. 그 꽃은 겉모습이 화려하고 향기가 그윽해서가 아니라 인민에게 복을 주는 그 소중한 가치로 하여, 그러면서도 자기를 뽐낼줄 모르는 그 아름다운 성정으로 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는 꽃으로 되였다고, 그 꽃처럼 자신을 바쳐 인민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큰 복을 안겨주시려고 늘 마음쓰시는 장군님을 우리 인민모두가 아버지라 부르며 따른다고…

목화꽃에 깃든 사연을 듣고난 단장은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또다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목걸이에 달린 십자가를 흔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조선사람들에게는 이런것이 필요없겠습니다. 그렇듯 위대한분을 어버이로 모시고있으니 하느님이 이 나라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참말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렇다. 우리에게 왜 하느님이 필요하겠는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 아름답게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품,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 그이는 우리의 행복한 삶과 후손만대의 안녕을 지켜 사생결단의 최전선길도 주저없이 헤쳐가시는 전설적령장이시다. 그이는 천만가지로 꽃펴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때로는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로도 되시고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건설의 시공주로도, 인민의 아들딸들이 공부하는 학교들의 교육자, 후원자, 학부형으로도 되신다.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바로 그런 위대한 령도자이시기에 우리 장군님은 한떨기의 꽃, 한그루의 나무도 언제나 인민, 인민을 자로 하여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생각하시는것이다.

아마 하늘도 목화꽃을 사랑하는것 같다. 그래서 그 꽃처럼 순결하고 희디흰 눈만을 내리게 하는것은 아닌지.

목화꽃바다와도 같이 펼쳐진 흰눈의 세계에서, 마식령스키장이며 희한하고 멋들어진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이 땅에서 복받은 주인들이 웃고 떠드는 광경이 눈앞에 어려온다. 그리고 들려올듯싶다.

위대한 당의 품에 아무런 시름없이 자기 운명을 다 맡기고 래일에 대한 더 큰 희망을 마음껏 꿈꾸며 행복에 겨워 웃는 인민을 보라고, 정녕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장군님 한평생 사랑하신 꽃중의 꽃, 아름다움중의 아름다움이였다고 말하는 흰눈의 속삭임소리가.

본사기자 리 건

# 천만년 잊지 말자 장군님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산같이 덧쌓여지는 12월이 왔다.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에게 남기신 가장 고귀한 애국유산은 무엇이며 그이의 한평생은 무엇으로 빛나는것인가.

## 당중앙의 불빛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혁명시간을 분분초초로 쪼개가시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생각하며 《당중앙의 불빛》이라는 노래를 지어불렀다.

우리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지새우신 밤들을 모두 합치면 번영하는 내 조국의 력사를 이루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부피두터운 혁명실록이 될것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단잠에 든 인민의 행복을 지켜 어느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시며 밤새워 일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꺼질줄 모르는 혁명열, 투쟁열의 상징이였으며 한생의 전부와도 같은것이였다.

사랑하는 인민을 찾아 눈비바람 다 맞으시며 불원천리 달리신 인민행렬차가, 최전연병사들을 찾아 철령과 오성산의 굽이굽이 멀고 험한 전선길을 헤치시던 그이의 야전승용차가 그대로 우리 장군님의 달리는 집무실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차안에서 조금 자는것이 제일 단잠이고 쉬는 때이며 그것이 휴식의 전부라고 하시였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민모두가 심장으로 노래하며 우러르던 당중앙의 불빛은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희생적인 헌신에 그 열원을 두고있었다.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마지막순간까지 깡그리 불태우시여 인민의 행복의 요람을 지켜 잠 못 드는 어머니당중앙의 영원한 불빛이 되여주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는 그 누구나 장군님의 인생관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싶습니다, 장군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같은 인생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였습니다라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정녕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은 타오르는 혁명의 거세찬 불길이였다. 오늘도 우리 장군님 지펴주신 당중앙의 불빛은 인민의 앞길을 등대처럼 환히 비쳐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이렇게 뜨겁게 속삭이고있다. 언제 어느때나 어머니당중앙의 열정과 헌신의 그 불빛을 심장에 안고 살라고, 어버이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이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라고.

##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주체87(1998)년 8월 31일 12시 07분, 우리 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우주공간으로 힘차게 솟구쳐올라 자기 궤도에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4분 53초였다. 몇분안팎이였지만 이 길지 않은 순간은 5천년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사변적인 순간으로 되였다.

20세기 후반기 광활한 우주에 조선의 자리길을 뚜렷이 새긴 주인공들은 지난날 약소민족의 슬픔을 안고 제 이름 석자도 지켜내기 힘들었던 어제날의 망국민들이 아니였다.

조선인민을 국력이 강하고 자주적대가 센 인민으로 키워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다.

인민의 꿈과 리상은 좋은 때, 좋은 세월을 만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희생적인 헌신으로 인민의 행복과 부강번영의 밑뿌리가 되여주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령도자를 모실 때만이 인민의 천만년 숙원이 가슴후련히 풀릴수 있는것이다.

《광명성—1》호의 발사,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온 세계가 들썩하게 울려주신 강성국가건설의 장쾌한 포성이였다. 《광명성—1》호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우주정복의 력사는 주체101(2012)년 12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첫 실용위성 발사의 성공으로 빛나게 이어졌다.

## CNC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속에서 CNC노래로 불리우고있는 《돌파하라 최첨단을》의 곡조는 들을수록 경쾌하고 부를수록 신바람난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에서 이 노래만큼 눈물겨운 추억을 불러일으킨 노래는 아마도 없을것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숨죽은 공장, 불빛꺼진 마을들을 뒤에 두시고 눈보라치는 6천여리 강계길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서는 CNC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조국앞에 가로놓인 시련의 얼음장들을 녹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강계의 눈보라속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씨앗을 마련하시였고 거목으로 자래우시였다.

그 씨앗이 바로 다름아닌 CNC화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식량이 모자라 고생하는 인민들을 두고 생각이 많으시였지만 내 나라, 내 조국의 힘을 키우시기 위하여 CNC화를 위한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였다.

CNC노래, 이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선군조선의 우렁찬 노래포성이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터친 승전고였다. 온 나라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업적은 CNC노래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 수 정

김일성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 주체의 사회과학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충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이런 격동적인 투쟁속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발표하신 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101(2012)년 12월 1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우리의 사회과학이 김일성-김정일주의사회과학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준 기념비적문헌이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사회과학자들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사회과학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사회과학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주의사회과학으로서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과학이 오늘과 같이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사회과학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사회과학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의하여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리론과 온갖 반사회주의리론이 분쇄되고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순결성이 옹호고수될수 있었으며 사회과학원이 나라의 종합적인 사회과학연구중심기지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주체적사회과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과 자주시대의 사회과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이시야말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우리 사회과학자들의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사회과학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길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는것은 혁명적사회과학발전의 근본담보이며 생명선이다.

오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견결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우리 조국을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이 완전히 실현되는 세계적인 강국, 사회주의선진문명국으로 일떠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이 우리앞에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의 사회과학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주의사회과학이라는것을 뚜렷이 천명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연구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사회과학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것이 로작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우리의 사회과학이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로작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사회과학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적방법론의 구현, 리론과 혁명실천의 결합, 력사주의원칙의 견지,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과학발전의 가장 옳바른 길이며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사회과학이 혁명실천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옳바른 방법론이 있어야 하고 과학연구활동원칙이 확고해야 한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외면한 리론, 철학성과 현실성이 결여되고 과학적해명이 부족한 허공에 뜬 리론, 력사적조건과 환경을 무시하고 주관적분석과 평가로 일관된 리론은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과학자들이 모든 문제를 철저히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하고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리론과 혁명실천을 결합시켜 사회과학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풍부화시킬데 대한 문제, 력사주의원칙을 옳게 구현할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이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모든 사고와 실천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하고 현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연구성과를 혁명실천에 구현하며 표현을 하나 써도 력사적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써야 한다는 사상들이 로작에 중요하게 강조되여있다.

오늘 우리 당은 어느 부문에서나 경직을 풀고 새 세기에 맞게 주체적방법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담하게 혁신하고 새것을 창조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이 모란봉악단공연을 중시하는것은 공연을 통하여 모든 부문들에서 굳어진 사고방식과 낡은 틀을 마스고 진취적인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자기 사업에서 혁신할 방도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배격하고 사회과학연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풀어나가는것, 리론적깊이가 있고 론리가 정연하며 누구나 보고 리해하기 쉬운 글속에 깊은 뜻을 담는것, 무슨 문제나 과장과 외곡이 없이 옳바로 밝혀내여 먼 후날에 가서도 과학적인 가치를 가질수 있게 하는것들은 다 주체의 사회과학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고있다.

로작은 다음으로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이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사회과학이 부강조국건설에서 맡고있는 몫은 대단히 크다. 사회과학에는 철학과 경제학, 법률학, 력사학으로부터 민속학, 언어학, 고고학, 문예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문과학들이 포함되여있다. 이 모든 부문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때 사회과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사상리론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손길아래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온 우리의 사회과학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독창성,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고 대내외에 널리 선전하며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쌓아올리신 업적과 경험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리론화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줄데 대한 문제로부터 현시기 사회과학이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고무추동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침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우리의 경제학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연구완성할데 대한 문제, 력사학, 민속학, 고고학부문에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고증하고 언어학부문에서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과학의 부문별과업들이 다 담겨져있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이다.

사회과학의 연구분야나 부문과학들은 결코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연구분야들을 개척하고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사회과학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들이 우리 혁명에 참답게 복무해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의 력사적의의와 생명력이 있다.

로작은 또한 사회과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과학을 당의 의도에 맞게 발전시키며 사회과학원앞에 나선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과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사회과학자들은 개척자,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니고있다. 사회적재부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값높은 사상정신적재부를 창조하는 나라의 귀중한 인재들이 바로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수령의 사상을 혁명적신념, 과학적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는 당의 참된 지식인, 견결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로작이 밝힌 중요사상이다.

오늘 높은 정치사상수준과 과학리론적자질의 소유자가 되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써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려는 우리 사회과학자들의 기세와 열정은 대단하다. 지금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적신념과 량심으로 당을 받드는 지식인혁명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고있다.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전공분야에 정통하고 련관부문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소유하며 그 어떤 연구과제도 해제낄수 있는 능력있는 과학자, 쟁쟁한 재사로 준비해나가고있는 현실은 주체의 사회과학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사회과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다.

모든 사회과학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과학연구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당의 과학전사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리 강 철

# 품이 들어도 해야 할 일

## 세포등판건설 교육위원회돌격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고 믿음성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세포등판건설 교육위원회돌격대 일군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다음해의 먹이풀판조성준비에서 품을 넣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지난 어느날 거름원천을 찾아 주변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던 돌격대일군들인 리광일, 윤철호동무들은 약속이나 한듯 먹이풀판구역에 쌓아놓은 바람막이뚝에서 만나게 되였다.

순간 서로 마주치는 두 사람의 눈길,

(방도는 바람막이뚝으로 쌓아놓았던 저 잡초뿌리들로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는데 있다.)

침실로 돌아온 그들은 돌격대원들을 모이게 한 다음 자기들이 생각한 안을 내놓았다. 모두가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적극 호응해나섰다.

이어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였고 현장에서의 기술적지도가 따라섰다.

돌격대일군들은 작업단위별로 바람막이뚝을 헐고 그자리에 5~10t규모의 잡초뿌리무지들을 렬을 지어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거름을 부을수 있게 무지가운데 홈을 쪽 내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돌격대원들이 맡겨진 하루작업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목표를 높이 세우고 많은 량의 진거름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드디여 거름생산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이른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앞채를 메고 진거름을 나르는 일군들의 말없는 이신작칙이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척박한 세포등판의 토양을 개량하여 대규모축산기지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갈 일념안고 돌격대원들은 거름생산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갔다.

이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거름더미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성과가 오를수록 돌격대일군들은 질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무지당 100kg의 진거름을 10배의 물에 풀어서 리용하며 필요한 량의 소석회도 어김없이 섞어주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거름의 질보장을 위해 그들은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선 결과 수천t의 질좋은 거름이 생산되여 다음해의 먹이풀판조성사업에 효과적으로 리용될수 있게 되였다.

이곳 돌격대원들이 뜨거운 구슬땀을 바쳐 생산한 수천t의 거름, 이 량은 누구나 측정할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깃든 돌격대원들의 애국의 열정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렬을 맞추어 우뚝우뚝 솟아난 거름더미들은 이렇게 속삭이는듯싶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해나가려는 세포등판개척자들의 불같은 애국의 마음이 이런 결실을 안아왔다고.

본사기자 김 성 일

# 집짐승사양관리에 큰 힘을

세포등판건설전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집짐승사양관리에 큰 힘을 넣고있다.

세포군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집짐승먹이준비를 착실하게 해놓았다.

특히 인민봉사총국돌격대를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돌격대들에서는 집짐승들의 겨울철먹이소비량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데 기초하여 매일 많은 량의 풀절임과 말린풀을 생산하였다.

평강군사단의 각 도려단들에서는 센 바람이 자주 부는 겨울철에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집짐승우리들을 새로 보수하거나 우리주변에 바람막이바자도 빈틈없이 쳐놓았다. 또한 추운 겨울철에 먹이를 끓여먹일수 있는 준비도 착실히 해놓았다.

이천군사단에서는 자연풀판조성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로력조직을 짜고든 결과 집짐승들의 겨울나이준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현장지휘부에서는 겨울철집짐승사양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모든 돌격대들에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온 나라에 사철푸른 잔디를 널리 퍼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 가고싶어 가는 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가 어렵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불심량변으로 원호하며 한전호에서 싸워왔다.》**

오늘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원군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고 도리이며 아름다운 생활로 되고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위하여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는 인민들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원산시 평화동 77인민반에서 사는 조용심동무는 지난 기간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는 선군의 총대우에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밝은 미래도 있다는 확신을 간직하고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그의 온 가정이 군인들을 친자식, 친형제로 여기며 바쳐가는 원군의 뜨거운 마음은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을 영웅적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원산시 전진동 15인민반에서 사는 김남희동무도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하였다.

자식과 함께 어떻게 되여 마식령스키장을 자주 찾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신 영상을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올 때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복진이를 데리고 명절이면 시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가 아들을 내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아끼고 사랑할줄 아는 참된 인간으로 잘 키우겠다고 결의도 다지였고 유치원에 오가면서도 언제나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기 쉽게 들려주었다고 하였다.

그래서였다.

《어머니, 아버지원수님께서 오르셨던 대화봉에 가고싶어요.》

까만 눈을 깜박이며 말하는 복진이를 바라보는 남희동무는 기뻤다.

그후 어머니와 함께 복진이는 스키장건설장을 자주 찾아가 많은 원호물자도 넘겨주고 군인건설자들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여러건의 글작품도 창작하여 읊어주면서 그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런 애국의 소중한 마음들이 깃들어 마식령스키장은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경 철

# 사리원시에서

##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사리원시에서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깨끗하게 꾸려야 온 나라에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사람들이 언제나 명랑하고 문명하게 생활하고 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국토관리를 잘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인민위원회, 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를 비롯한 시급기관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깐지게 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대중을 나무심기와 도로기술개건, 강하천정리, 도시미화사업에로 불러일으켰다.

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 일군들은 가을철나무심기와 다음해 봄철나무심기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군중동원사업을 짜고들어 나무심기와 구뎅이파기, 양묘장흙깔이, 나무종자채취를 짧은 기간에 끝냈다.

시의 많은 단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애국의 뜨거운 마음안고 떨쳐나 시주변의 산들과 거리와 마을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시금속생산협동조합, 랭동공장, 정보기술전문학교, 철산초급중학교를 비롯한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직원, 학생들은 자기 고향, 자기 마을을 제손으로 꾸려간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나무심기에서 실적을 올리였다. 이들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짧은 기간에 많은 나무를 심고 수십만개의 나무구뎅이파기, 수십정보의 흙깔이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공원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된바람이 일었다.

사리원시가 도시미화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도로와 시주변을 잘 꾸리고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야외체육시설들을 갖춘 체육공원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살림집건설과 걸음길포장 그리고 시내의 여러곳에 공원들을 훌륭히 꾸리였다.

시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건물보수와 외장재바르기 등 생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살림집건설과 공공건물보수, 걸음길보수도 동시에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여러동의 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고 수십km의 걸음길보수와 70여동의 건물외장재바르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 잘 꾸리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의 열의에 의하여 시의 면모는 날마다 변모되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 조국은 이런 사람들을 척후병, 개척자라고 부른다

## 인포탄광 일군들과 탄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불과 한해사이에 인포탄광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탄광적인 하루 석탄생산량이 지난 시기에 비해 수백t이나 늘어나고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갱, 채탄중대들이 더 높은 증산목표를 향하여 기세좋게 나가고있다.

종업원살림집, 남새온실, 병원, 유치원 등 40여개의 대상들이 개건되였거나 새로 일떠서 이곳 탄광지구의 전반적인 면모가 일신되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지하전초병들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우리는 이곳 탄광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서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 생산에 앞서 중시한 문제

모든 사업에서 침체와 답보, 경직과 도식을 배격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혁신해나가는데 성과의 비결이 있다는것이 인포탄광의 어제와 오늘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지난 3월 어느날 탄광의 일군들이 석탄생산을 늘일 방도를 찾기 위해 현장에 내려갔을 때였다.

일군들은 갱초급일군들도 만나보고 막장으로 들어가 생산실태를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료해해보았다. 걸린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불리한 막장조건도 문제였지만 전차와 탄차대수를 늘여 운반능력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서고있었다.

그러나 일군들은 이 과정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을 찾게 되였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 현재의 막장조건과 설비상태로는 석탄생산을 늘이기 어렵다는 기존관념이 차있었던것이였다. 물론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조건도 무시할수는 없었다.

지배인,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탄광의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안건은 뜻밖에도 종업원들의 생활조건보장문제였다.

—당에서 아끼고 내세워주는 탄부들을 위해 우리 일군들이 있다. 탄부들의 생활상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데 석탄증산의 비결이 있다.

협의회에서는 종업원살림집, 남새온실, 영양제식당, 병원, 유치원 등의 개건 및 건설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다같이 풀어나가기 위한 실무적대책들도 취해졌다.

계획된 공사들이 적극 추진되던 어느날 탄광앞에는 올해안으로 어느 한 지구에 70여세대의 살림집들을 건설할데 대한 긴급과제가 제기되였다.

탄광의 일부 일군들과 탄부들속에서는 이 새로운 건설과제로 하여 올해에는 어차피 계획했던 종업원살림집건설을 완공하지 못할것이라는 말들이 오갔다. 바로 그러한 때 지배인, 초급당비서의 결심은 어떠했는가.

—아니다. 탄부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것은 곧 그들에 대한 관점문제이다.

탄광의 책임일군들은 이런 립장을 가지고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맸다. 지배인 전재록동무가 늘어난 공사량에 맞게 목재와 세멘트를 더 마련하기 위해 아글타글 뛰여다닐 때 초급당비서 김정상동무는 공사장들에 나가 건설자들의 열의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화선식경제선동을 더욱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하여 10월말까지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종업원살림집건설뿐아니라 추가로 제기된 건설과제를 다같이 해내고야말았다.

이뿐이 아니였다. 수백세대의 종업원살림집지붕보수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탄광의 일군들은 병원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의 개건과정에 나온 예비와 자체로 찍어낸 기와를 리용함으로써 계획된 날자까지 기어이 해냈다. 탄광주변에 흔한 유휴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탄광소회의실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매 종업원세대들이 한해동안 쓸 석탄을 지구별로 운반해주어 탄부가족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우연치 않다.

생산에 앞서 중시한 문제,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탄광의 어제와 오늘이 대비되는 하나의 시점을 보게 된다.

### 결사관철,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다

자연과의 투쟁은 난관을 동반하기마련이다.

수시로 석수가 터지고 붕락이 일어날지 모르는 막장에서 석탄생산을 정상화한다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말그대로 결사의 각오와 투쟁을 떠나서는 바랄수도 없는것이다.

지난 10월 어느날 3갱의 어느 한 채탄장에서 석수가 쏟아져내렸다. 머리우에서도, 막장의 좌, 우에서도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갱의 전반적인 채탄장들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물러설수는 없다. 어떻게 마련한 채탄장인데…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더 높은 석탄증산성과로써 보답해야 한다는 하나의 자각이 채탄중대원들을 오직 앞으로만 떠밀었다. 모두가 육탄이 되여 석수를 맞받아나갔다. 한쪽에서는 석수가 뿜어져나오는 곳에 쐐기를 박아 쓸어드는 물을 막기 위한 전투가 조직되였고 다른쪽에서는 시시각각 차오르는 물을 다른데로 빼돌리기 위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전투장은 말그대로 화선을 방불케 하였다.

이들은 물에 젖은 석탄에 발목이 푹푹 빠져 움직이기조차 힘든 속에서도 마른 탄벽을 찾아내면서 작업을 계속하였고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갱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투쟁도 립체적으로 벌리였다.

하여 이곳 채탄중대원들은 그날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끝끝내 수행하고야말았다.

지난 8월초 1갱의 본선 2600m위치에서 붕락이 일어났을 때였다. 끊임없이 내리는 장마비로 하여 8m구간의 막장천정이 뭉청 내려앉아 갱의 운반선로가 막히게 되였다.

갱장 리철수, 갱기사장 안길수, 굴진중대장 박철동무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사고현장에 모여왔다. 어림짐작으로도 5일은 실히 걸려야 복구할수 있는 방대한 작업량이 눈앞에 있었다.

이럴 때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이 울려나왔다. 갱의 초급일군들이 앞장선 가운데 긴장한 전투가 벌어졌다.

15시간의 결사적인 투쟁끝에 붕락구간은 극복되였으며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월 석탄생산계획완수의 돌파구를 열어제낄수 있었다.

어찌 그들뿐이랴. 막장이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공기배관설치가 미처 따라서지 못한 상태에서도 석탄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는 박만은채탄중대원들, 여느때같으면 한달은 실히 걸린다던 막장복구를 단 3일만에 해제끼고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정학철굴진소대원들…

이곳 탄광에는 온 나라가 다 아는 3갱 우원용채탄중대가 있다. 언제나 당의 부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나라의 석탄생산에 크게 이바지한 우원용채탄중대의 투쟁기풍이 이제는 모든 채탄중대, 굴진소대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로 되고있다.

지난 11월 12일까지 년간석탄생산계획을 끝낸 5갱의 탄부들의 투쟁이야기도 우리의 감동을 자아낸다.

하루과제를 끝내기 전에는 막장을 뜨지 않는다는 김학철, 리황복, 강학남, 김봉철, 백영철동무들을 비롯한 채탄1중대원들…

캐낸 석탄을 더 많이, 더 빨리 운반하기 위해 10여리 막장길을 오가며 빈 탄차를 신속히 끌어오군 한다고 하여 《탄차마중공》들로 불리우고있는 채탄2중대 김현철소대원들과 전차와 탄차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붙어살다싶이 하는 김충성, 리명식, 전금혁, 최명길동무를 비롯한 운반소대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우리는 이곳 탄부들의 투쟁이야기를 다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격동적인 하나하나의 투쟁세부들을 너무도 평범하고 례사로운 일로 여기고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 보고 느꼈다.

천길지하막장에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헌신의 구슬땀을 뿌리며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결사관철의 실천으로 꽃피워가는 척후병, 개척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본사기자 류 성 국

# 백두산시초에 비껴흐르는 애국자가정의 충정의 세계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기초의학부 실장인 교수, 박사 심영률동무와 그의 가정

—조선을 알자면 백두산을 보아야 하며 조선에서 혁명을 하자면 백두산을 알아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높이 솟아있는 유서깊은 삼지연군을 찾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더욱 뜨겁게 새겨진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신조로 삼아야 할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10여년간 백두산과 더불어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한마음을 바쳐온 가정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기초의학부 약리학연구실 실장인 교수, 박사 심영률동무의 가정이다.

얼마전 심영률동무가 백두산을 빛내이는 애국충정의 한길에서 심장의 고동을 멈춘 안해의 마음까지 합쳐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심영률동지!
훌륭한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정 은
2013. 9. 15》

이 땅의 평범한 의학자의 가정에 훌륭한 가정이라는 값높은 평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최상최대의 축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절세위인으로부터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심영률동무와 그의 가정은 과연 어떤 신념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기에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온것인가.

우리는 그들이 백두산천지물에 붓을 적셔가며 혁명의 성지의 위대함과 숭엄함을 격조높이 노래한 백두산시초를 보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 백두가 안겨준 서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은 민족의 넋이 깃든 조선의 상징이며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입니다.》

심영률동무와 그의 안해 리옥렬동무는 사람들속에서 백두산시인부부로 불리울 정도로 백두산에 대한 시를 참으로 많이도 썼다. 아늑한 연구실이나 따뜻한 아래목에 앉아 쓴 시라면 그렇듯 깊은 감흥을 자아내지 못할것이다. 그들은 백두산시초 《백두산을 영원히 마음속에 안고 살리》 등을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산정에 무려 30번이나 오르며 창작하였다.

직업을 놓고볼 때 문학창작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들이 스스로 백두산을 노래하는 가수가 된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다.

그들이 일가친척들과 함께 처음으로 백두산에로의 행군길에 나선것은 주체85(1996)년말경이였다.

식량공급소의 문이 하나, 둘 닫기고 달리던 렬차가 때없이 멎어서던 고난의 그 시절 그들은 어찌하여 백두산에로 향한것인가.

인간의 신념은 어려울 때 검증된다.

어린 손자들의 자그마한 배도 불리워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연구사업으로 먼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줴기밥조차 변변히 안겨주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하여 심영률동무의 안해인 리옥렬동무의 가슴은 때없이 아파났다. 하지만 리옥렬녀성은 눈앞의 시련만을 생각하며 제집 살림살이만을 걱정하는 연약한 녀인으로 살고싶지 않았다. 어느날 텔레비죤화면에 백두산의 천변만화하는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하여 불타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이 비쳐졌다.

언제 보아도 힘이 솟는 백두산, 주체혁명위업의 시원이 열리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마련된 백두산을 빛내이는 길에 한생을 바쳐가는 탐험대원들과 뜻도 걸음도 함께 하고싶은 충동으로 하여 그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안해의 의향을 들은 심영률동무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워났다. 자식들에게 그 어떤 물질적재부가 아닌 백두의 넋을 정신적재보로 안겨주기 위해 그 먼길에 나설 용단을 내리는 안해의 모습을 바라보는 심영률동무의 머리속에는 언제인가 가정에서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21살 꽃나이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면서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기 위해 늘 애써온 안해의 그 열망에 감동이 컸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조선사람의 근본을 잊지 않고 살자면 신념의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살아야 하오. 갈바엔 우리 6남매일가가 모두 함께 갑시다. 탐험대원들에게 필요한 물자랑 준비해가지고 말이요.》

부부의 마음은 이렇게 합쳐졌고 얼마후 유치원어린이로부터 70고령의 로인에 이르기까지 수십명이 망라된 6남매일가의 류다른 백두산행군대가 무어졌다. 해당 당조직들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백두산의 겨울은 상상했던것보다 더 엄혹했다.

아름드리나무도 순간에 뿌리채 날려보낼듯 한 세찬 바람, 온몸을 꽁꽁 얼구는 맵짠 날씨, 진눈까비에 젖은 옷은 어느새 꽛꽛해졌고 온몸은 바늘로 쑤시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대오의 선두에 선 리옥렬동무가 선창으로 뗀 혁명가요 《적기가》를 따라부르며 그들은 끝끝내 백두산정에 올랐고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백두산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과 상봉하였다.

백두산, 정녕 숭엄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이였다.

정일봉에 감도는 안개는 그 얼마나 많은 사연 전하는것이고 천지호반에 떨기떨기 피여난 만병초며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또 얼마나 아름답고 장쾌한것인가. 층암절벽밑 바위틈에 억세게 뿌리박은 나무를 보면 광풍에도 꺾이지 않는 그 기상으로 살며 투쟁할 신념이 더욱 굳어졌고 백두산의 세찬 눈보라를 맞받아나가느라면 그 어떤 시련도 난관도 굴함없이 뚫고 오직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혁명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갈 의지가 억척같이 다져졌다.

가슴에서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는 그 신념과 의지를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어느덧 그들의 입가에서 열정의 시구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
백두산의 해돋이 붉은 빛발은
혁명의 한길을 곧바로 가라
이 땅을 하나의 큰 붉은 기발
붉은색으로 물들이는듯
…

그들은 이렇게 백두가 안겨준 서정을 안고 시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백두산과 장군님》, 《백두산의 만병초》…

한번 가면 두번, 세번 또 가고싶은 백두산이였고 오를수록 혁명열, 애국열이 뜨겁게 이글거리는 열정의 시편들이 끝없이 쏟아졌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이며 천지호반, 정일봉을 찾는 걸음이 잦아질수록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정,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의 열도는 더욱 뜨거워졌다.

심영률동무의 가족성원들은 끓어오르는 충정의 한마음안고 백두산밀영고향집설경과 정일봉을 형상한 수예품 등을 정성껏 마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군인들을 위한 원호사업을 진행한것 등 그들이 찍어온 충정과 애국의 발자욱은 백두산에서 뻗어나간 이 땅 그 어디에나 속속들이 찍혀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백두산과 더불어 충정의 한길, 애국의 한길만을 걸어가는 심영률, 리옥렬부부가 창작한 백두산시초를 여러차례에 걸쳐 보아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 대를 이어 부르는 백두산의 노래

백두산바람이 좋다, 우리도 백두산에 함께 가자! 이것은 백두산과 더불어 더욱 몰라보게 성장해가는 심영률동무의 6남매일가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사람마다 터친 목소리이다. 10여년동안 수만점에 달하는 물자를 안고 백두산을 찾는 과정에 심영률동무의 6남매일가는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백두산에로의 첫 행군대오에 망라되였던 자식들모두는 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손에 이끌려 따라갔던 손자, 손녀들도 청년으로 자라났다.

백두산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뼈를 굳히고 몸을 단련해온 과정에 이들의 애국의 마음은 또 얼마나 커만 갔던가.

최근에만도 심영률동무는 선물식물인 단나무의 약리작용을 밝혀낸데 이어 단나무열매주사약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림종의 시각 자기 마음까지 합쳐 백두산을 찾아가달라고 부탁한 리옥렬동무 역시 피복부문의 일군으로 사업하는 전기간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을 수많이 찾아하였다. 리옥렬동무가 불렀던 백두산의 노래를 오늘은 그의 손자, 손녀들이 부르고있다.

8살때부터 백두산에 오르면서 수집한 백두산돌표본과 식물표본을 찍은 사진을 편지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고 인민군대에 입대한 손자 정일명, 백두산을 다녀올 때마다 백두산천지물과 소백수의 맑은 물을 떠다가 동무들에게 안겨주는 손녀 홍심애,

그들이 백두산길에서 창작한 글작품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아주시였다.

한 의학자의 6남매일가와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 부르는 백두산의 노래! 그것은 주체위업계승의 중대한 시기인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이 삶의 근본으로 간직하고 살아야 할 혁명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참된 생의 노래, 애국의 노래로 더욱 뜨겁게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박옥경

#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보급사업 활발

## 승리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조국과 인민, 우리 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입니다.》

붉은 당기발을 억세게 추켜들고 승리만을 떨쳐갈 천만군민의 심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태여난 시대의 명곡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메아리치고있다.

각지에서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 대한 보급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시대의 명곡은 광범한 대중의 심장에 충정과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 대한 보급사업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모든 교직원, 학생들에게 시대의 명곡에 담겨진 사상적내용을 깊이 인식시킨데 기초하여 노래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특히 명곡에 대한 보급 및 해설사업을 모든 학생들을 우리 당이 바라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 조국을 떠받들 믿음직한 역군들로 준비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부르면 부를수록 또 부르고싶은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대학,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답게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선군혁명의 골간으로 튼튼히 준비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져주고있다.

**신의주법랑철기공장**에서도 시대의 명곡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종업원들이 모인 앞에서 공장일군이 진행한 노래해설사업은 대중의 심장에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맡고있는 자신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나갈 열의를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당세포비서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 직장과 작업반사무실, 생산현장들에 노래가사를 게시해놓고 일터마다에서 시대의 명곡이 끝없이 울려퍼지도록 하고있다.

활발히 벌어지는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에 대한 보급사업과 더불어 공장의 분위기가 더욱 일신되고 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어머니당의 품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서정깊이 형상한 노래는 이렇게 천만군민을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존엄높은 당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진군에서 승리만을 떨쳐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조향미

# 현대건축의 발전추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적인 건축은 새로운 시대, 새 생활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는 조건에서 건축창조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것을 요구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현대건축과학과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수많은 분야에서, 각이한 각도에서 건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세분화된 전문지식들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현대건축은 보다 높은 단계에로 비약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현대과학기술성과에 토대하여 생태건축과 록색건축, 지능건축과 수자건축과 같은 과학화되고 종합적인 전문지식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건축분야들이 개척되여 현실에 적용되고있다.

지구의 자원위기의 심각성과 생태환경보호의 중요성으로부터 세계적인 범위에서 록색운동의 열풍이 일어나고 이에 대처하여 건축부문에서 록색건축이 발생하였다.

록색건축은 생태학의 원리를 응용한것으로서 자연환경과 자원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보장해주는 건축이다. 그러므로 록색건축은 건축물의 리용에서 자연계의 자원과 에네르기소모를 최소로 하여 오염발생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며 사람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건강에 리로운 실내공간을 보장해준다. 다시말하여 록색건축에서는 건축물을 환경보호에 적응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처럼 록색건축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에게 가장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축의 건전한 지속적발전을 목표로 하는것으로 하여 미래건축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현대건축을 대표하여 새로운 건축류형으로 출현한 지능건축은 건축기술과 정보기술의 호상결합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률이 높으며 편리한 생활과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주는것으로 하여 현대건축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고있다.

지능건축은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건축설비의 자동조종 및 관리 등과 건축을 결합시킨것이라고 볼수 있다.

지능살림집은 망을 통하여 정보교환과 자료조사를 진행할수 있고 먼거리교육, 먼거리치료, 먼거리독서 등을 보장받으며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수 있고 자동조종장치에 의하여 물, 전기, 연료, 실내온도, 습도 등을 자동조절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하며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거주환경을 마련해주게 된다.

현재 지능건축은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되고 통신, 사무, 설비, 봉사, 관리 및 그것들사이의 가장 합리적인 결합을 보장하여 경제적효과가 최상의 수준이면서도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있다.

지능건축의 발전은 과학기술과 경제의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며 이것은 매개 나라와 지역, 도시의 현대화에서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되고있다. 사회의 진보와 과학기술의 발전, 인류의 요구에 따라서 지능건축은 도시속의 정보지구, 정보단위로부터 지능도시로 확대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지능건축은 현대건축기술과 현대정보기술, 현대조종기술, 현대통신기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3대기본계통 즉 통신망계통, 사무자동화계통, 건축설비자동화계통이 하나로 일체화되여 구성되여있다.

지능건축은 비록 출현한지는 오래지 않지만 정보시대의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현대건축발전추세로 되는것으로 하여 세계적범위에서 광범히 연구도입되고있다.

이밖에도 정보화시대, 수자화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한 수자건축은 건축설계로부터 시공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 정보기술, 수자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류형의 건축이다.

수자건축은 콤퓨터와 다매체, 망, 통신기술에 기초하고 수자정보응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자기술을 건축분야에 도입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대상의 구상과 착상, 설계로부터 그에 대한 구조기술적해석과 CNC기술에 의한 부재생산과 건설시공 전과정을 포괄하고있다.

수자건축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날로 높아가는 사람들의 건축에 대한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건축의 지속적발전을 추구하는 생태건축, 록색건축, 지능건축과 함께 미래형건축으로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강좌장 김현철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문덕군 소년근위대립석고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 나라의 귀중한 재보—천연기념물

## 해주락우삼과 원산금솔

해주락우삼은 황해남도 해주시 옥계동에 위치하고있다.

해주락우삼은 1930년대초에 심은것으로 알려진 한그루의 나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5(1976)년 2월 중앙식물원을 찾으시고 해주락우삼과 같은 희귀한 식물들을 많이 심고 보호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나무의 높이는 21.3m이고 뿌리목둘레는 3.8m, 가슴높이둘레는 2.67m이며 나무갓너비는 7.3m이다. 나무의 줄기는 곧추 자랐으며 미끈하다.

나무갓은 어린 시기에 고깔모양이였는데 점차 자라면서 긴 둥근모양으로 되였다.

해주락우삼은 학술연구와 나라의 원림화, 수림화를 위한데 큰 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원산금솔은 강원도 원산시 송천동에 위치한 원산농업종합대학의 구내에 있는 한그루의 나무이다.

이 나무는 1890년경에 30년생 나무를 옮겨심은것이다.

나무의 높이는 18m이고 뿌리목둘레는 2m, 가슴높이둘레는 1.9m이며 나무갓너비는 6.4m이다.

나무는 곧추 자라며 가지는 거의 수평으로 뻗으면서 돌려붙어 나무갓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꼭같은 고깔모양을 이루고있다.

나무의 생육상태는 좋으며 우리 나라에서 자라고있는 금솔가운데서 제일 큰 나무이다.

원산금솔은 우리 나라의 동해안에서 자라는 가장 크고 오랜 나무로서 학술적 및 풍치적의의가 큰 천연기념물이다.

당의 현명한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오늘도 창공높이 솟아설레이고있는 이 나무들은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애국심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 공화국선수권대회

## 빙상호케이경기 결속

지난 11월 14일부터 빙상관에서 시작된 공화국선수권대회 빙상호케이경기가 11월 30일에 끝났다.

경기는 1차련맹전에서 올라온 남녀 각각 4개 팀이 2차련맹전을 벌려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경기를 속도화하면서 박력있게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빙상호케이 남자경기에서는 평양철도국체육단 선수들이 1등을 쟁취하였으며 대성산체육단과 수산성체육단 선수들이 2등과 3등을 하였다.

녀자경기에서는 대성산체육단 선수들이 우승하였으며 강계제1사범대학체육단, 김책제철련합기업소체육단 선수들이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빙상호케이경기로 공화국선수권대회가 전부 끝났다.

선수권대회는 나라의 체육기술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 다음주에 진행될 국내체육경기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 여러 체육경기들이 다음주에 진행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해마다 열리는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가 12월 3일 빙상관에서 개막된다.

경기대회는 26일까지 진행될것으로 예견된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정구경기도 있게 된다.

경기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태권도전당,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 모란봉체육관에서 벌어진다.

4개 조로 나뉘여 진행되는 경기에서는 승자전의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 영국방문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출발

영국을 방문하기 위해 김을호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이 11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

리원군 염성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책읽기를 생활화해나가고있다.

책은 말없는 스승이며 생활의 길동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독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정상적으로 많은 책을 읽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책읽기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농장원들의 높아지는 독서열의에 맞게 신문과 잡지, 각종 도서들에 대한 보급사업이 잘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리고 읽은책발표모임과 실효모임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생활화된 책읽기기풍은 농장원들속에서 문화정서생활의 랑만을 더욱 활짝 꽃피우고있다.

로농통신원 김남준

# 영양가치가 큰 정장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정장어는 분류학적으로 볼 때 연송어목 연송어과 정장어속에 속하는 민물고기이다. 정장어는 희귀하고 큰 육식성찬물고기로서 영양가치가 매우 높다.

우리 나라에서 정장어(일명 자치라고도 한다.)는 압록강의 중상류일대와 장자강, 장진강, 허천강수역들에 분포되여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맛이 좋은 정장어는 물속의 진귀한 보물이라고 할 정도로 고기질이 좋고 영양가는 일반 물고기들에 비할바없이 훨씬 높다. 정장어는 살과 기름함량이 많아 고급식용물고기로 되고있다.

다 자란 정장어의 크기는 보통 70~80㎝이고 큰것은 100㎝를 훨씬 넘는것도 있다. 몸은 옆으로 넙적하고 길며 몸높이가 좀 낮다. 대가리는 우로 약간 넙적하며 입이 매우 크다. 턱과 입천장에는 작고 센 이발들이 빽빽이 줄지어 나있다. 비늘이 잘고 옆줄은 거의 곧게 나있다.

몸은 붉은 보라색을 띠며 등쪽은 약간 검푸른색이고 배쪽은 은백색이다. 대가리부와 옆몸에 작고 검은 반점들이 빼곡이 나있다.

정장어속의 물고기들은 모두 찬물고기로서 물온도가 낮고 물흐름이 급하며 수질이 맑고 물가에 풀이 무성한 강상류나 지류에서 산다. 몹시 사나운 육식성물고기로서 헤염속도가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며 물고기들을 따라가 잡아먹기를 좋아한다.

관찰에 의하면 정장어는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헤염쳐다니면서 물고기들과 물에 들어온 쥐나 뱀 등과 같은 륙지살이동물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회유습성을 보면 정장어와 천협정장어는 알낳이전 물오름성회유이고 태문정장어는 봄철의 번식회유와 가을, 겨울철의 겨울나이회유이다.

정장어는 물온도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집약화양어에 적합하다.

번식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년내내 먹이활동을 한다. 봄에 알을 낳은 다음 먹는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7월에는 물온도가 올라갈수록 떨어지다가 9월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며 겨울에도 먹이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알은 모두 누런색이며 둥근 모양을 띤다. 점성이 없고 가라앉는다. 바닥알쓸이형으로서 엄지고기가 물밑에 알을 낳고 수정알을 자갈모래속에 숨겨 발육시킨다.

번식계절이면 모래자갈바닥을 알쓸이터로 선택한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지나친 정장어잡이로 하여 이 물고기자원이 거의 고갈되여가고있다.

영양가치가 큰 정장어를 보호증식시키고 그에 대한 양어기술을 완성하는것은 물고기자원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 과학기술박물관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고 사회와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박물관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과학기술박물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사람들의 과학적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전람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보급 및 교육활동을 벌리는 과학기술지식보급거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20세기말에 과학기술박물관의 수는 세계적으로 약 4 000개로서 박물관총수의 20%를 차지하였으며 그 절대다수는 1950년대이후에 세워졌다고 한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전람, 과학실험, 강습, 과학기술강좌, 자문봉사를 비롯한 각종 정보봉사와 국내외의 다른 과학기술박물관들과의 정보교류, 국제회의와 학술교류, 연구토론회 등을 통한 다른 나라들과의 정보교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과학기술보급 및 교육활동을 벌린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과학기술전람이다. 과학기술전람은 참관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참관할수 있는 상설전시장과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조직되는 단기전람회를 위한 림시전시장에서 진행한다.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과학기술박물관건설표준》에 의하면 전시물에는 국내외의 과학기술발전력사를 보여주는 실물 또는 복제품, 과학기술의 기본원리와 최신발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계제작한 전시물, 보충설명을 위한 화상과 도표가 포함된다고 한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힘을 넣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발견궁전에서는 참관자수의 70%정도가 18살아래의 청소년들이며 다른 많은 과학기술박물관들에서도 참관자수의 대다수가 청소년들이라고 한다. 과학기술박물관의 보급 및 교육활동에서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도서관사업이다. 전시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보관해놓고 봉사해줌으로써 참관자들이 과학기술지식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 세계에서 제일 강한 무기는 선군조선에 있다

국제사회계는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위대한 태양으로,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조선이 미제국주의자들의 횡포무도한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끄떡없이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전진하는데 대해 진보적인류는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다면 그 자랑찬 력사와 기적을 창조해온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여 조선이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며 경이적인 현실을 안아올수 있었는가.

인디아신문 《라버 메일》은 이렇게 썼다.

《조선이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놓을수 있은것은 바로 조선에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라는 최강의 사회정치적무기가 있기때문이다.》

일심단결! 말하기는 쉬워도 쉽게 이룰수 없는것이 뜻도 마음도 하나로 합치는 단결이다.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정치가치고 단결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를 돌이켜보면 로동계급의 지도자들은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들고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제로 내세우고 투쟁하였다. 그러나 전대오가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한 당은 일찌기 없었다. 더우기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한 단결, 온 사회의 일심단결에 대하여서는 그 어느 나라 당도, 그 어느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오직 우리 당만이 일심단결의 사상을 내놓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일심단결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령도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이룩할수 있다.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열화와 같은 충정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필승불패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이룩되였다.

《ㅌ.ㄷ》의 기발이 휘날리던 지난 세기 20년대의 피어린 언덕을 넘으며 력사의 첫걸음을 내디딘 그때부터 우리 혁명은 대오의 일심단결의 전통을 창조하며 승승장구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은 자신의 혁명철학이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인민모두를 사상과 뜻, 생사를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시여 온 사회를 하나의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묶어세우시고 혁명을 힘차게 이끌어나가신다.

일심단결은 우리 나라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의 상징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의 인사들과 국제사회계는 천만군민이 하나가 되여 력사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있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탄복하며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은 조선의 국력이 강한것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처럼 자기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열렬히 흠모하며 따르는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처럼 헌신하고계시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장식할것이다라고 확언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겠는가.

네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선군정치연구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있다.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정의의 위업실현을 위해 과감히 투쟁하고있다. 선군조선의 승리의 비결은 일심단결에 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조선을 부러워하는것도, 제국주의자들이 원자탄보다 더 무서워하고있는것도 바로 일심단결이다. 하기에 국제사회계가 그렇듯 격찬하고있는것이다.》

빼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군대와 인민이 한가정, 친형제처럼 서로 위해주고 도와줄뿐아니라 운명을 함께 해나가는것이 오늘날 조선사회의 참모습이다. 지휘관과 병사,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이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는 세계언론계에서도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영국신문 《더 뉴 워커》는 《일심단결된 조선은 계속 전진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혁명의 대는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단결의 중심, 일심단결의 전통, 혁명대오의 순결성은 확고히 고수되고있다.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그이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절대적인 신뢰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 그대로인 김정은동지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있다.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기치,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시다.》

로씨야 빠뜨리오뜨신문사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신 도서 《위대한 일심단결》을 출판하였다.

도서발행식에서 신문사책임주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모시였기에 조선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불패의 보루로 거연히 솟아오를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밑에 조선은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조선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있다,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들은 총을 들고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조선동지들과 함께 싸울것이다, 조선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횡포한 미제와 맞서 싸우는 군사강국이다라고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중심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에 대한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는 세계도처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선군의 기치밑에 날로 더욱 강화되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보며 사회주의조선의 창창한 래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김 철 룡

# 사회주의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주체적인 국방공업

##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의 반향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의 국력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저저마다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로씨야과학원 원동분원대표단 단장 꿀친 유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런 훌륭한 무장장비관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곳은 조선의 총대력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군의 무장장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하룬 아르라쉬드는 참관을 통하여 조선의 무장력발전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위적국방공업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조선은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계신다.

조선의 무장력은 그 어떤 강적도 쳐물리칠수 있게 준비되였다.

에스빠냐공산주의청년련합대표단 단장 후안 노구에이라 로뻬스는 참관소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의 무장력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주체적인 국방공업이 있어 조선에서는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척척 만들어내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출명장들의 위대한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기 위하여 무장장비관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이는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다.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대표단 단장 피터 윌슨은 참관을 통하여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무장장비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무기들로 장비되여있다.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은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상징하고있다.

# 기네에서 강연회, 영화감상회 진행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주제의 강연회와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기네예술대학과 기네 꼴로마구역 밤베또지구병원에서 11월 12일과 19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단위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기네예술대학 미술학부 학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오늘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받고계신다.

해빛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그이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사람들이 감복하게 되는것은 김정은령도자의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후대사랑은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해 훌륭히 이어지고있다.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

김정은령도자의 이끄심따라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기네군 알마미 싸모리 뚜레병영부사령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군대와 강위력한 무장장비를 갖춘 조선인민이 참으로 부럽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조선인민군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군사강국, 우주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올려세우신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조선의 통일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강철의 대오 조선인민군》이 상영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포도의 나라-로므니아

로므니아는 발칸반도의 동북쪽 흑해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이 나라의 면적은 23만여㎢이다. 이 나라에는 어디를 가나 큰 포도원이 펼쳐져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수도 부꾸레슈띠의 거리들에는 《무쓰떠리예》라는 간판을 단 음식매대들이 나타나는데 이 말은 로므니아어로 《포도즙매대》라는 뜻이다.

로므니아에서는 포도를 따서 즙을 내여 마시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고있다.

로므니아의 포도원들에 가을철이 오면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가지마다 주렁지는데 그것은 마치도 구슬같이 투명한 옥을 다듬어 만든 예술작품을 련상케 한다.

로므니아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포도술이 있다.》라는 속담도 있다.

포도술은 만들자마자 팔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나무통에 저장하는데 그 저장고는 지하 10여m깊이에 건설되여있다.

로므니아의 포도재배와 포도술제작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2 000년전 로마제국이 다찌야(로므니아의 전신)를 공격한 원인도 바로 이 포도술을 빼앗고 이 지역 포도원을 강점하기 위해서였다고도 한다.

로므니아인의 조상인 다찌야사람들은 포도술을 매우 좋아하였다. 그들은 만취될 정도로 포도술을 마시군 하였기때문에 당시 다찌야의 국왕은 자기 사병들을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금주령까지 내린 일이 있다고 한다.

로므니아는 포도재배면적상 세계 44개 포도재배국가운데서 7위의 자리를 차지하며 년간 포도술생산량은 세계 8위이다.

오늘은 로므니아국경절 95돐이 되는 날이다.

김 수 진

## 녀성들에 대한 폭력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

브라질대통령 딜마 바나 로우쎄프가 11월 25일 한 연설에서 사회적으로 녀성들을 보호할것을 호소하였다.

녀성들에 대한 폭력을 끝장내는것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나라가 가정폭력을 막고 녀성들의 일자리를 늘이는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적조치들을 취하고있는데 대해 말하였다.

## 테로와의 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

스리랑카국방비서가 11월 25일 한 국제토론회에서 연설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테로와의 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테로와의 싸움은 세계적인 투쟁이며 테로행위는 반드시 분쇄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세계가 테로를 반대하여 싸우는 매 나라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성원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라들사이에 정보교환, 공동작전, 공동순찰을 통해 해상안전을 담보하는것도 반테로투쟁에서의 협조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 비난

팔레스티나대통령 대변인이 11월 25일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날 이스라엘신문 《하아레쯔》가 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800채의 유태인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보도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이스라엘당국이 긴장한 정세를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까밝혔다. 새로운 유태인살림집건설책동을 평화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로 단죄하고 그는 팔레스티나는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의 모든 정착촌건설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로므니아가 11월 25일 무역, 투자, 먼거리통신 등 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여러건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마자르, 쓰르비아는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합의를 이룩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23일 꼴롬비아와 에꽈도르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오늘의 중앙아프리카

아프리카대륙의 중심에 놓인 데로부터 나라이름이 생긴 중앙아프리카는 원래 《라바호》와 《씨누에》라는 2개의 나라로 되여있었다. 그러던것이 1894년에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식민지나라로 수난을 겪으면서 중앙아프리카지역을 병합한 하나의 《우방기샤리》라는 나라로 되였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58년 12월 1일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나라이름을 중앙아프리카라고 고치였다.

중앙아프리카는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정세를 안정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리고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주변나라들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밀접히 하고있다.

이 나라의 주요자원은 금강석, 우라니움, 쇠돌, 아연 등이다. 금강석은 광택이 나고 색갈이 좋은것으로 널리 알려져있으며 국토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에 매장되여있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산물은 목화, 커피, 강냉이, 수수, 벼, 목감자 등이다.

중앙아프리카는 목화가 많이 난다고 하여 목화의 나라로 불리우기도 한다. 국경지방은 목화의 주요산지로 되고있다. 일찌기 중앙아프리카를 강점한 외래침략자들은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목화를 해마다 수많이 략탈해갔다. 목화는 독립이 이룩된 후에야 비로소 나라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천으로 되여 새 사회건설에 리용되게 되였다. 이 나라는 국내원료인 목화와 황마를 리용하여 수백만m의 천과 황마제품을 생산하고있다.

공업에서는 채취, 농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이다. 채취공업에서는 금강석채굴과 우라니움채굴을 중시하고있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중앙아프리카는 림업발전에도 힘을 넣고있다. 커피, 목화, 목재, 금강석은 경제의 4대기둥이며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수입품은 운수수단, 화학제품, 기계설비, 원유제품, 식량 등이다.

오늘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선포 55돐이 되는 날이다.

본사기자

웰남 기행

# 자기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벗들속에서

우리 《로동신문》대표단은 웰남의 지방도시 짱 닝주에 대한 참관을 위해 수도 하노이를 떠났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숙소에 찾아온 년전신문사의 한 일군이 짱 닝주의 날씨가 하노이에 비하여 좀 차기때문에 덧옷을 준비해야 한다고 친절히 이야기해주었다. 11월 조국의 날씨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남방의 기온에 어느덧 습관된 우리의 건강을 미리 념려해주는 그의 진정이 고마왔다.

하노이시참관과정에 매우 인상적인 주민들의 오토바이행렬과 나란히 하며 시내거리를 벗어난 우리의 차행렬은 교외도로를 따라 기세좋게 달리기 시작하였다.

차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언듯언듯 안겨왔다. 력사가 오랜 건물들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개건하는 살림집들도 보이고 어떤 곳에는 현대미를 자랑하는 덩지큰 공공 및 산업건물들도 집중되여있었다. 각양각색의 그 모든 건물들과 살림집들에서 눈길을 끄는것은 그 대부분에 웰남국기가 나붓기는것이였다. 년전신문사 관공실 과장인 판 썬은 자기네 웰남사람들은 국기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명절은 물론이고 보통날에도 집들과 청사마다에 국기를 내거는것을 즐겨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논벌의 풍경도 이채로왔다. 논들에는 벼대들이 서있는데 이삭들은 보이지 않았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동행자는 여기 북부지방에서는 2모작 벼가을걷이를 방금 끝낸 때라고, 웰남농민들은 가을걷이때 벼대는 그냥 둬두고 벼이삭만을 자르며 후에 논을 통채로 갈아엎는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한시간반가량 달린 우리의 차행렬은 길옆의 어느 한 건물로 꺾어들었다. 짱 닝주의 유명한 관광지인 하롱만까지의 절반길인 이곳에 꾸려진 도중휴식장소에는 특색있는 봉사소가 있었다. 웰남칠화를 비롯한 그림, 서예작품들과 돌 및 나무공예품들 그리고 수예작품 등이 드넓은 봉사소건물안에 전시되여있었는데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휴식하면서 자기의 기호에 맞는 기념품들을 마련하고있었다. 특색있는것은 관광객들이 봉사소의 여기저기서 칠화와 수예품 등을 직접 만드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볼수 있는것이였다. 년전신문사의 일군은 이들중에는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시기에 대량적으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신체장애자들도 있는데 당과 정부에서는 이런 봉사소들에 그들을 적극 받아들여 직업도 해결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킨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웰남특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이곳에서 잠시 휴식하고 다시 길을 떠난 우리 일행은 점심녘에 목적지인 하롱만이 자리잡고있는 주소재지에 도착하였다. 년전신문사 일군들의 안내로 숙소인 하롱 펄호텔에 려장을 풀고 점심식사를 한 우리는 오후 첫 시간에 동북총회사를 찾았다.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들과 봉사망들이 집중되여있는 바이 차이지구와 주정부청사를 비롯한 행정 및 공공건물들이 있는 홍가이지구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있었는데 그를 련결해주는 수백m의 줄다리가 매우 특색있었다.

부총사장을 비롯한 총회사의 일군들이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호지명주석의 반신상이 있는 정면 한켠에 《로동신문》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내용의 프랑카드가 크게 걸린 회의실에서 우리들은 이곳 일군들로부터 총회사의 연혁에 대해 듣게 되였다. 1994년 웰남국방성에 소속된 기업소로 발족한 이 총회사는 평화시기에는 생산 및 무역사업을, 유사시에는 국방보호활동의 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총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일군들이 현역군인들인데 우리를 영접한 부총사장도 대좌의 군사칭호를 가지고있었다. 총회사는 석탄과 광물을 기본수출지료로 하여 생산과 무역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있었다. 유명한 홍가이탄전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탄광들이 있는데 총회사의 석탄생산량은 전국적인 생산량의 10%정도를 차지하고있었다. 해마다 환경보호를 위해 수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동시에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인민들에게 수백세대의 살림집을 지어주는 등 인민생활향상과 도시발전에도 적극 기여하여 총회사는 당과 정부로부터 여러차례 높은 급의 훈장과 축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부총사장의 목소리는 긍지에 넘쳐있었다.

웰남사람들 누구나 그러했듯이 이곳 총회사의 일군들도 사회주의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완강히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정신력과 의지에 대한 탄복을 금치 못해하였다. 자기들은 미제의 제재에 굴함없이 맞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감탄한다고 하면서 두 손을 뜨겁게 잡아주는 총회사 일군들의 바래움속에서 뿌리깊고 전통적인 조선웰남친선의 정을 느끼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약동하는 새 생활이 그대로 느껴지는 홍가이지구를 지나 느라니 시원히 뻗은 시내도로와 특색있는 가로수들과 화단들, 서로 다른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관광도시로서의 면모가 새라새롭게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짱 닝주의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주의 사회경제발전정형에 대한 일정한 리해를 가지게 되였다.

주당책임일군인 부 짜오는 올해에 도시창설 50돐을 기념하였다고 하면서 주에서는 세계명승지의 하나인 하롱만과 수많은 력사유적지들이 있는 유리한 자연지리적환경에 맞게 관광업발전과 환경보호에 주되는 힘을 돌리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관광업을 기본으로 하는 주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의 1인당 평균소득은 50년전에 비하여 10배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최근년간 관광객수는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외국인 200만명을 포함하여 700만명의 관광객을 기록했다는것이였다. 정부의 후원밑에 주에서는 자체의 발전계획에 따라 하롱만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건설을 활발히 벌리고있다고 하였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년전신문사의 일군들과 함께 주당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따로 낸 유람선 《청년》호를 타고 하롱만에 대한 참관에 나섰다. 유람선들은 대부분 50명정도의 인원을 태우게 된 목선들이였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 녀성안내원은 여기에 이런 배들이 500척정도 있는데 바다에서의 일반적인 관광로정은 3시간정도 걸린다고 하였다. 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이곳은 험준한 산발이였는데 오래전 지각운동에 의하여 땅이 내려앉고 바다물이 들어와 그때의 산봉우리들이 바로 이런 산섬들을 형성하였다는것이다. 하롱만은 1 530여㎢의 지역에 집중된 이런 1 969개의 섬들을 포함하고있는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지역에는 775개의 섬들이 있다고 하였다.

꼬리를 물고 섬들사이를 빠지는 배들속에 섞여 우리가 탄 《청년》호도 관광로정을 따라 상쾌하게 달렸다. 안내원은 오른쪽에 보이는 섬을 가리키며 저 섬이 이곳 섬들중에서 비교적 크고 아름다운 섬인 투언 저우섬이라고, 그 섬까지 방파제를 쌓아 륙지와 련결시켰는데 섬안에 호텔들과 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뗑 헝섬주변에 이르니 바다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류달리 눈길을 끌었다. 그들은 일년사계절 하롱만의 일정한 구역에 모여 배우에서 생활하는데 지난 시기에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웰남당과 정부의 관심속에 15년전부터 이런 바다마을들에 학교와 병원이 생기고 관광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들의 생활도 날로 윤택해지고있다는것이다. 외국의 관광객들은 그들의 배집에 올라 숙식도 하고 그들이 선창밑에서 직접 기르는 물고기로 만든 료리도 맛보면서 하롱만특유의 바다마을생활을 체험하기를 즐겨한다는 안내원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호기심을 부쩍 돋구어주었다. 때로는 넓고 때로는 두 섬이 맞붙을 정도로 좁은 바다길을 이리저리 빠지며 크고작은 산섬들의 각양각색의 모양에 찬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그는 자라섬, 부부섬, 나무섬, 옥섬 등으로 모든 섬들이 그 모양과 력사, 자연적특징들로 이름지어졌다고, 호지명주석과 함께 이곳을 찾은 이전 쏘련의 우주비행사의 이름을 단 섬도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황홀한 경치에 취해 우리는 3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다. 날씨가 흐려 초기에 계획하였던 석회동굴이 있는 섬참관을 하지 못한다는 판 썬 과장의 이야기에 아쉬움을 덧붙이며 우리는 항구로 향하였다. 귀항길에 줄다리로 련결된 바이 차이지구와 홍가이지구를 바다에서 바라보는 감흥 또한 새로왔다. 중국의 어느 한 시인이 남긴 《하롱만에 가보지 못한다면 웰남에 다녀왔다고 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의 참뜻을 다시금 새겨보게 하는 인상깊은 관광길이였다.

자연이 낳은 기적중의 하나인 하롱만, 그 경치는 오래전부터 유명하였다. 그러나 외래침략자들과 굴함없이 싸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지키기 위한 웰남인민의 오랜 기간의 장구한 투쟁이 있어 오늘의 하롱만이 더욱 빛나는것이 아니겠는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웰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짱 닝주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하롱만의 면모를 나날이 일신해가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수도 하노이에로의 귀환길에 올랐다.

우리는 자동차행군에 좀 피로는 하였지만 하노이에서의 마지막밤을 참관길에서 느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며 늦도록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년전신문사 편집위원인 도 브엉의 안내를 받으며 국가투자총회사를 찾은 우리는 콕 우이부총사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위해 취하는 웰남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속에 확대되는 총회사의 전망의 일단을 엿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헤여지기에 앞서 도 브엉편집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지만 《로동신문》대표단 동지들을 잊을수 없다며 우리들에게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함께 모신 태양상초상휘장을 자기도 모시고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토로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느라니 절세위인들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여 세기를 이어가며 누리는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부풀어올랐다. 자리를 같이한 년전신문사의 판 썬과장과 부과장, 웰남외무성의 통역, 우리 대표단의 사업에 큰 관심을 돌려준 당대외부 판공실의 녀성일군들모두가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하며 앞으로 조선을 꼭 방문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모습속에서 웰남방문기간 만났던 유명무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되새기며 하노이비행장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반제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고무추동하며 더욱 공고발전될 조선웰남친선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듯 싶었다.

본사기자 리 병 춘

하롱만의 아름다운 경치

ㄱ-31188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